



14면

경영혁신분야 '신지식인' 선정

전주매일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음 5월 23일) 제330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육성

도·농어업·농어촌특위 맞손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도모 목적으로 추진

농생명 신산업 발전방향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새만금, 바이오 허브' 주제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위 공동 개최 세미나도 열려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정태평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농어업, 농어촌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정보 교류 등이다

이어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국가 바이오 소재 허브'를 주제로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과 국가 역할(김성민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 농생명산업 거점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전북대 손재권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라승용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새만금 국가 바이오 소재 허브'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농어업위원회의 김성민 위원장 농식품부 안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박연주(쑤) 롤로랜드 대표와 전북도측의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손재권 전북대

교수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천연물소재산업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대량 생산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천연물 소재 산업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대단위 천연물 생산 단지 구축의 최적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대학교, 남원시화학품산업지원센터 등 지역 소재 기관, 대학 지자체연구소 등에서 천연물 대사체 등 1,200만개 이상의 천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전북이 새만금과 연계한 바이오소재를 본격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평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

을 통해 "전북은 미래 잠재력이 큰 새만금 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종자, 천연물 소재 혁신형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될 길 기대한다"며 "전북의 새만금 지역이 네덜란드의 푸드벨리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푸드벨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농생명바이오 식품이며, 이러한 강점을 더 강하게 키우고자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도를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하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종자업·육묘업 미등록 등 집중 단속... 12월 31일까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영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8개 시·군에서 하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소 종자·묘, 과수 묘목, 화훼류 영양체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되는 종자나

묘가 있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 표시 여부 등을 주요 조사 사항으로 하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나 묘를 판매하게 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더욱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묘 유통조사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 063-858-21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주재기자(원주)	"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특별자치도추진단 조직 확대

도, 국단위 승격... 총괄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
특자도 안정 정착 위한 업무 추진 계획도 발표

전북도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국 3과 12팀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즉시 과단위 TF(3개팀)를 가동한 전북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생명경제' 비전 설정 등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마친 상태에 이르렀다.

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합심해 655건의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부처 의견 조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13일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단위로 승격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자로 개편된 조직 구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등 3

개과로 구성돼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체계적인 압박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입법활동을 총괄하면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부처 설득 방향과 전략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과제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총괄, 232개 조문의 탄탄한 논리를 보강해 줌으로써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책임지며, 자치제도과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2,000여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을 주관한다. 특히, 도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부터 제·개정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동안 소규모 팀 구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여건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은 국 단위에 걸맞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립김병준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제4부
김병준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길 위에서 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

2023년 7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북 남원시 합파우길 65-14 T. 063)620-5660